

AI수요 폭발·메모리 품귀… 삼성전·닉스, HBM 업고 목표가 ‘쑥’

9월 들어 반도체주 코스피 웃돌아
ASIC 확산에 HBM 고객층 넓어져
메모리 재고 10일 미만까지 감소
내년 AI 인프라 투자 1744조 전망

작장인 이용현 씨(37)는 2년째 보유 중인 평균 매수단가 8만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언제쯤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이 씨는 “수익률이 수백 %에 달하지만, 팔고 난 뒤 주가가 더 오르면 많이 아쉬울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 김승연(가명·40) 씨는 매일 아침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며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나’ 생각한다. 김 씨는 “지난 4월 100만 원대에 매수하려다 참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픈AI의 새 인공지능(AI) 모델 ‘GPT-6 아스트라’발 훈풍에 곱들대고 있다. 9일 삼성전자는 전날과 같은 26만9500원, SK하이닉스는 3.51% 상승한 18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9월들어 코스피가 3.40%나 상승했는데, 삼성전자(3.65%)와 SK하이닉스(10.87%)는 코스피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은 두 회사 주가가 더 오를 것으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I.

로 보고 있다. 9일 애플엔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 평균 목표주가는 48만8409원이다. SK하이닉스 평균 목표주가는 330만5652원이다.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증권사들도 다시 목표주가를 올려 잡고 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과 D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각각 310만원, 23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주가 40만원을 제시하며 눈높이를 올려잡았다.

증권사들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낙관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는 강하지만, 제조사는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하다. 공장 증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탓에 공급이 제한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아스트라’ 출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주도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현재 메모리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에 힘입어 전례 없는 수요 호조를 보이는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4년 이내에 글로벌 메모리 생산 능력이 지금의 두 배인 월 720만장, 6년 내에는 세 배인 월 1100만장 규모로 늘어나야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투자 방식의 변화도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 GPU 중심의 AI 투자가 주문형반도체(ASIC)로 확산하면서 HBM을 필요로 하는 고객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상승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 자체 개발하는 ASIC 분야에서는 HBM 적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메타의 자체 AI칩 MTIA는 300에서 400으로 넘어가며 HBM3E 탑재량이 216GB에서 288GB로 늘어나 향후 MTIA 450과 500에서는 메모리 대역폭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AIA 200 역시 12단 HBM3E 216GB를 탑재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HBM의 전반적인 탑재량 확대뿐만 아니라 ASIC 진영의 적용 확대 기조는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는 AI 투자 규모 자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내년 메모리 시장은 역사상 가장タイト한 공급 환경이 전개될

전망”이라며 “3분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재고는 10일 미만까지 낮아진 상황으로, 단순한 수요 회복 국면을 넘어 공급 가능한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KB증권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44조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60% 확대된 수준이다. AI 인프라 투자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4%에서 2026년 40%, 2027년 57%로 2년 만에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빅테크의 수익성 악화로 설비투자가 둔화되거나,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메모리 기업이 빠르게 경쟁자로 떠오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원화 강세도 실적을 짓누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기존 1553원에서 1400원으로 낮추면서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5.7%, 4.2% 하향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도 같은 기간 각각 4.8%, 5.6% 낮췄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자회사 상장 문턱 높인다… “모회사 주주 동의·보상 의무화”

중복상장 원칙 제한 법안 발의
공모주 50% 이상 기존주주 우선·할인
독립경영 등 요건 갖춰야 예외 허용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신규 상장사의 공모주식 절반 이상을 기존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 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자선시장 강세와 고환율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며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세밀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모회사의 종속회사나 계열회사가 상장하는 경우를 중복상장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복상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외적으로 상장이 허용되는 경우는 ▲ 모회사 주주의 동의 ▲ 기존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액이 모회사 전체 매출액의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등 실질적인 독립경

영이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모든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거래소 규정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중복상장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일반 회사와 저비중 자회사 등을 포함해 자회사 상장 전반으로 주주 동의 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상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주 보상 장치도 강화했다. 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 신규 상장사의 공모주식 가운데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할인해 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자회사 상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자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을 기존 주주와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안 의원은 “기업에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결정권과 실질적인 보상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metro

美·日 금리차 축소 기대… 엔화 반등에 원화도 힘받나

일본 이달 금리인상 전망 확산
엔화 강세에 원화 추가 상승 기대

연일 달러당 160엔을 넘기며 약세를 지속했던 엔화값이 급등했다. 일본은행이 이달 개최하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상 전망은 후퇴하면서 미-일 기준금리차의 축소 전망이 나와서다. 엔화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엔화값과 동조성이 높은 원화값의 추가 상승 기대도 나온다.

9일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53엔 중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7일·8일 양일간 큰 폭으로 하락(엔화값 상승)해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100엔당 154엔 아래로 내렸는데, 이날 거래에서도 큰 반등 없이 엔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이달 초 100엔당 850원 수준까지 하락했던 원·엔 환율도 2거래일 연속으로 870원을 넘겨

거래됐다.

앞서 엔화값은 올해 하반기 계속된 미·일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기록적 약세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 7월 말에는 달러당 164엔을 목전에 두며 엔화값이 40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7~8월 일본의 개입 규모는 15조4000억엔(약 134조원) 규모에 달했지만, 9월 초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0.20엔 수준이었다.

◆ 엇갈린 미-일 ‘금리전망’

일본 외환당국의 대규모 개입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엔·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은 미·일 양국 중앙은행의 금리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연 2.75%포인트(p)에 달하는 미-일 양국의 기준금리차는 엔화의 주요 약세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행은 오는 18~19일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금리(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일본은행의 현행 정책금리는 연 1.0%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25bp(1bp=0.01%p) 인상을 확실시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장기 목표치인 2%를 넘기고 있고, 엔화의 약세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서다.

반면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는 미 연준의 금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초에는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 위원들과 소비 및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적 위원들이 대립하며 ‘금리동결’에 대한 전망도 빠르게 확대했다.

엔화의 강세를 요구하는 미 외환당국의 압박도 엔화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엔화의 저평가’를 지적했던 미 외환당국은 지난 7월 일본 외환당국과 공조한 대규모 엔화 매수를 단행한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日 국제금리 급등… 해외나간 자금 돌아오나

10년물 금리 1996년 이후 첫 3%
美·유럽 채권시장 수요 감소 우려

일본 국제금리가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해외로 빠져나갔던 일본 자금의 본국 회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기존 해외 자산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신규 투자를 자국으로 돌리면 미국과 유럽 채권의 수요가 줄어 글로벌 금리 상승을 자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일본 10년물 국제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연 3%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과 재정 지출 우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금리를 끌어올렸다. 엔화 가치도 이달 들어 4% 상승했다.

알레스 쿠틀니 뱅가드자산운용 해외금리 담당 책임자는 “일본 내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일본은 점차 더 많은 자본을 자국 안에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

는 엔화와 일본 국제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채권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자금 조달 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로 향하면서 세계 최대 자본 수출국이 됐다. 일본 투자자의 미국 국제채 보유액은 1조1000억달러, 전체 해외 자산은 5조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산 배분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GPIF는 318조엔(약 2781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GPIF를 관장하는 우에노 겐이치로 일본 후생노동상은 8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포트폴리오 수정과 관련해 “지난 3월 말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적절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